

6월 30일~7월 1일 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 예상강수량(29~30일): 제주도 100~200mm(많은 곳 산지, 남부 250mm 이상)
- 강풍·풍랑, 천둥·번개로 인한 안전사고 유의 및 많은 비로 인한 침수 피해 대비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전재목)은 6월 30일(금)부터 7월 1일(토) 사이 남해상에서 점차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하였다(붙임 참조).

29일(목) 밤부터 1일(토)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해상에서는 29일(목) 밤부터 1일(토) 오전까지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며, 특히, 30일(금) 아침부터 7월 1일(토) 새벽 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4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강풍·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장마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강하고 많은 비와 강한 바람에 의한 위험기상이 예상되니, 시설물 점검 철저,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3년 6월 30일~7월 1일 예상 위험기상 설명자료
2. 과거 유사 사례시 제주도 호우·강풍 피해 보도자료

담당 부서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충기 (064-909-3920)
		담당자	전문관 한경훈 (064-909-3920)



[6월 30일(금)~7월 1일(토) 예상 기압계 모식도]

1 강수전망

- 제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후면으로 남하하는 차가운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면서 형성되는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함에 따라, 30일(금) 새벽부터 제주도에겐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 (호우) 29일(목) 밤까지 제주도에겐 남풍이 지형을 만나 형성되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30일(금) 부터는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

- 특히, 30일(금) 아침부터 7월 1일(토) 새벽까지, 정체전선 상에서 매우 강하게 발달하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지형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산지와 남부에는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분석하였다.
- 24일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에는 100~200mm(제주도산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리는 많은 비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 계곡, 하천 상류의 호우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가능성, 야영 자제
 - 하천변 산책로 이용 시 고립 가능성,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유의
 -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에 유의
 - 하수도과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
 -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와 산사태 가능성이 높음
 -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
 - 돌풍과 천둥·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
 - 천둥소리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
 - 한라산 둘레길, 오름, 올레길(해안, 산간) 출입 자제

< 예상 강수량(29~30일) >

○ 제주도: 100~200mm (많은 곳 산지, 남부 250mm 이상)

※ 7월 1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예보 참고 바람

- (가시거리) 한편, 비가 내리는 곳으로는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고, 강한 비가 내리는 곳에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며,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중산간 이상의 지역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제주도 남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변동성) 이번 강수는 정체전선의 발달정도와 이동경로에 따라, 강수 집중시간과 강수집중구역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겠고, 1일(토) 이후에도 제주도 주변으로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최신의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강풍과 풍랑 전망

- (강풍) 29일(목) 밤부터 7월 1일(토) 오전까지 제주도산지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70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풍랑) 29일(목) 밤부터 7월 1일(토) 오전까지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35~60km/h(10~16m/s)로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 밖의 해상에도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밝혔다.
- 또한, 당분간 남해서부해상과 제주도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겠고,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유의사항) 7월 1일(토) 오전까지, 강한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및 비닐 하우스, 간판, 해수욕장과 같은 야외 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와 높은 물결로 인한 해상 및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사사례1) 2019. 6. 26.

'요란한 첫 장맛비' 제주 전역 호우경보...침수 피해도(종합)

26일부터 늦은 장마 본격 시작...제주도 전역 호우특보

송고시간 | 2019-06-26 13:23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6 09:49 수정 2019.06.26 10:02



제주도 재난본부 '비상 2단계' 발령

제주 남해 집중호우 예상...밤부터 전국 확대

(제주=연합뉴스) 전지예 기자 = 26일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됐다.



26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다.



제주 장마 시작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장마가 시작한 26일 오전 우산들은 학생이 제주도 아리랑 제주대 캠퍼스를 걷고 있다. jhcopark@yna.co.kr

[제주=최승훈 기자] 26일부터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9시를 기준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제주산간을 비롯해 제주서부 북부 남부 동부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제주산간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4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 짧지만 굵은 장마...국지성 호우 잦을 듯

기상청은 26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100mm이상, 전남과 경남에는 20~60mm 가량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봤다.

장마전선은 이날 오후 일본 남쪽으로 잠시 물러났다가 주말쯤 다시 북상해 또 한 차례 장마비를 뿌릴 전망이다.

올해 장마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볼 때 예년(6월 19일 시작)보다 1주일 정도 늦게 시작했다. 장마 시작 시기는 예년보다 늦었지만, 종료 시기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년보다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강해 남쪽의 더운 공기와 강하게 대치하면서 좁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유사사례2) 2018. 6. 30.

"우르릉 광" 장맛비 덮친 제주, 기습적 폭우로 침수피해 속출

(유사사례2) 2021. 7. 3.~4.

한라산 200mm 장맛비...제주 내일까지 최대 150mm 더 내리

A 박성우 기자 (paw@yna.co.kr) | © 입력 2018.06.30 14:15 | # # #

입력 : 2021-07-04 11:21 / 수정 : 2021-07-04 12:50



▲ 30일 오전 내린 폭우로 침수가 피해가 발생한 제주시 구덕읍 앞대 농경지. ©제주소리



지난 3일 오후 9시 59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공사장 펌스가 넘어져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전역에 많은 비... '시간당 50mm' 동부지역 침수 피해신고 잇따라

39년 만의 '자카 장마'가 시작된 제주 지역에 밤사이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 전동-반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제주 동부지역의 경우 시간당 50mm를 넘어선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한때 태피 소음이 벌어졌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9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공사장 펌스가 넘어져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또한 전날 오후 10시14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건물에서 간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현 재까지 비바람 관련 3건의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제주도 육상 전역에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제주지역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고 있다. 모레(7월 2일)까지 제주도 전역에는 100~2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산간지역

지난 3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27mm, 서귀포 47.3mm, 성산 62.9mm, 고산 33.6mm, 한라산 삼각봉 202mm, 진달래밭 163.5mm, 가시리 94.5mm, 태풍센터 92mm, 새별오름 89mm 등이다.